

파산 위한 위장이혼

4·29폭동 이래 장기 불경기로 인해 많은 한인이 파산선고(챗터7)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빚에서 벗어나되 재산은 보존하려는 시도로 「파산을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변칙을 한인사회에 등장시키게 됐다.

「파산을 위한 위장이혼」이란 무엇이며 왜 생겨났는가. 채무자는 채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파산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처분됨으로써 부채로부터

법의 재산분배 원칙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에 적용되며 이혼시 부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재산과 빚을 분배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법원 판결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파산 전에 가짜 이혼을 통해 합의를 작성, 재산은 한 사람이 차지하고 빚은 다른 한 사람이 다 떠맡아 이혼이 형식적으로 완결된 후에 빚을 떠맡은 사람이 챗터7을 통해 빚



신혜원 <변호사>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아내에게 넘어간 부부 공동재산은 보

가정이 어이없이 깨진 경우다. 잘 나가던 다운타운 의류업자였던 그는 LA 외곽에서 좋은 집에 살며 2~3년에 한번씩 새 모델 벤츠를 부담 없이 바꿔타던 40대 사장님이였다. 2남1녀인 그의 자녀들 또한 학업 성적도 좋아 이들 부부는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였다. 그러다가 4·29 폭동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A씨 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은 아내가 빚은 남편이 떠맡는 형식

재산 건지려다 가정 잃는 위험한 변칙

벗어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배는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르는데 기혼자가 결혼중 캘리포니아에 살며 획득한 모든 재산은 캘리포니아 가정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혼자의 개인재산이 아닌 한 이혼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처리돼 부부는 50%씩 소유권을 갖는다. 이혼시 이러한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중 부부에 의해 발생된 빚은 물론 결혼전 부부 어느 일방에 의해 발생된 빚을 청산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가정

만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장이혼은 대단히 위험하다. 첫째, 법적 차원에서 봤을 때 위장이혼 자체가 재산을 보호하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결혼중 부부 이름으로 빌린 은행 용자나 크레딧 카드 빚을 남편이 갚도록 합의서가 작성되고 이혼이 법적으로 완결된 후 남편이 파산선고를 신청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채권자는 이혼 합의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채무변제를

호박을 수 없다. 둘째, 위장이혼은 「진짜 이혼」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 위장이혼은 재산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착안됐을 터이나 위장 이혼한 부부는 너무도 완벽하게 이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위장이혼이라도 재산분배 문제만 합의서에 넣을 수 없으니 자녀 양육권·자녀 양육비·배우자 생계보조비 등도 합의한 상태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부부가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씨도 이러한 위장이혼으로

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장이혼했다. A씨가 파산선고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부부는 사업실패를 서로 탓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싸움을 했다. 아내는 진짜 이혼을 선언했고 위장이혼 합의서는 진짜 이혼 판결문으로 둔갑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부모의 가짜 이혼 진짜 이혼 소송들이 속에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문제아로 전락한 것이다.

「파산을 위한 위장이혼」,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나의 제험담



「이중언어교육」 없어도 된다

벽창우 <리미라다 거주>

필자 부부는 1972년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의 두 아들과 5세 딸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이주했다. 처음엔 3년체류 예정이어서 아 들들은 현지의 영어학교에, 딸을 일년뒤 프

클리와 MIT를 졸업하고 모두 한국어, 영어, 스페인말이 유창한 직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딸애는 불어와 이태리어까지 5개국어를 한다. 셋이 이렇게 「멀티플」언어를 배우는

「극우익의 음모」설을 주장하는 이에게 말한다. 「이중언어 교육」을 계속하여 언제까지나 영어를 못배우게 하는 것이 극우파의 이민자 소외 음모이지 영어를 배우도록 길을